

본 연구는 어머니와 유아 간의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195명과 그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가정환경자극에 대한 설문지에 응답하였으며, 연구자가 유아와 일대일로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환경자극은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주제어: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child)
유아의 자아존중감
(Preschoolers' Self-esteem)
가정환경자극
(Quality of Home Environment: HOME)

- 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 제1저자
2)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석사, 공동저자
3)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
(jiyoha@wsu.ac.kr)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s Between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child and Self-esteem Among Preschoolers: A Moderating Effect of Quality of Home Environment (HOME)

서 소 정¹⁾ 김 연 주²⁾ 하 지 영³⁾
So Jung Seo Yeon Ju Kim Ji Young Ha

I. 서론

자아 개념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걸음마기에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신을 다양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게 된다(Stipek, Gralinske, & Kopp, 1990). 또한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자신을 타인과는 다른 특성과 감정, 생각을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게 된다(Howe & Courage, 1997). 이후 유아기에는 인지 발달과 함께 자신의 능력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하여 자기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념, 즉 자아존중감을 형성해 나간다(Harter & Pike, 1984).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자아개념(self-concept)', 어떤 일을 얼마나 잘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하는 '자신감(self-confidence)' 등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며,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Jambunathan & Hurlbut, 2000).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자아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평가적 요소가 더 많이 포함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김영숙, 1999).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단계에 비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Marsh, 1990; Marsh, Craven, & Debus, 1998). 이후 인지 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타인과의 비교나 부모, 교사, 또래들로부터의 평가 등을 통해 현실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특히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입학이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obins & Trzesniewski, 2005). 또한 유아기 후반 정도 되면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자아개념의 다양한 측면들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Marsh, Ellis, & Craven, 2002; Verschueren, Doumen, & Buyse, 2012). 자아

존중감은 전반적인(general) 자아존중감과 영역별(domain-specific) 자아존중감으로 구분되는데(Jensen, 1983), 이미 유아기부터 자아개념의 영역들이 세분화되어 발달한다는 것이다(Marsh, Craven, & Debus,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면적인 자아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의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기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놀이성(조준오, 김영연, 나정, 2016), 또래유능성(유경훈, 강순미, 2013), 사회적 유능성(임현주, 2017), 기관 적응(박희숙, 이승은, 2007), 학습준비도(민미희, 2017), 낮은 스트레스(박윤조, 김성현, 2016), 행복(김은주, 이시자, 2015; 박민지, 김민진, 2016)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자신이 가치있다고 생각하여 어떤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진영, 이경화, 2001). 이와 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갖는 발달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이와 관련된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우선 유아의 기질을 고려할 수 있다. 유아의 기질은 자아존중감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유구중, 김현주, 2017).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의 기질을 가진 유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 수줍고 두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기질과 자아 개념이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Brown, Mangelsdorf, Neff, Schoppe-Sullivan, & Frosch, 2009). 그러나 유아의 기질과 자아존중감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기질 자체보다 유아의 기질과 유아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최현미, 2013; 최현미, 신동주, 2012). 유아의 기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질요구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배경숙, 조희숙, 2004)의 결과 역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의 기질요구도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Thomas와 Chess(1977)의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 개념은 유아의 기질이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의 대안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조화의 적합성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다양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로 시작되었으며, 환경의 특징, 요구와 기대 등이 개인의 능력, 특성, 행동양식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Thomas & Chess, 1977).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유아에게 심리적 손상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어머니가 자녀의 기질을 수용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반응할 경우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다(Thomas & Chess, 1977). 이처럼 조화의 적합성 개념은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아의 기질 그 자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기질과 환경의 요구 또는 기대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Chess & Thomas, 2013). 최근까지 조화의 적합성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와 어머니의 조화의 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사회성의 발달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이순복, 김문숙, 2011; 이시자, 2013; 이주연, 이사라, 2018; 허미경, 이소은, 2010).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 박근주와 서소정(2014)의 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의 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장유진과 이강이(201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보다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학업능력, 사회능력, 또래수용, 우울-불안, 신체능력 등에 관한 자기지각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의 적합성은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의 역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화적합성이 단독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환경적 작용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특히 유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유아를 둘러싼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가정환경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정환경이란 가정에서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자극의 정도를 의미하며(김정미, 곽금주, 2007; Caldwell &

Bradley, 2003), 우수한 가정환경은 놀이와 학습 자료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임현주, 2017). 가정환경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유아를 존중하고 풍부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며 독립심을 자극하는 가정환경이 유아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존중감과 가족수용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유경훈, 강순미, 2013). 또한 김영숙(1999)의 연구에 따르면, 발달을 지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기 쉽고, 부모가 자녀의 성숙한 행동을 촉진하며,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등의 가정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유아의 인지능력과 동료수용, 신체적 능력, 자기수용 등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대한 가정의 교육적 환경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이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은 각각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한 가정환경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서 다른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정환경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곽금주, 유제민, 김정미, 2007; Bradley et al., 1994)은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이 모두 낮을 경우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어느 한 가지 요인이라도 높은 것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자극의 수준에 따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유아의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전의 발달단계보다 현실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기 시작하고, 영역별로 세분화된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가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정서사회성의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을 도모함

으로써 유아의 전반적인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가 자아존중감을 적절하게 발달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유아가 바람직한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 연구문제 1.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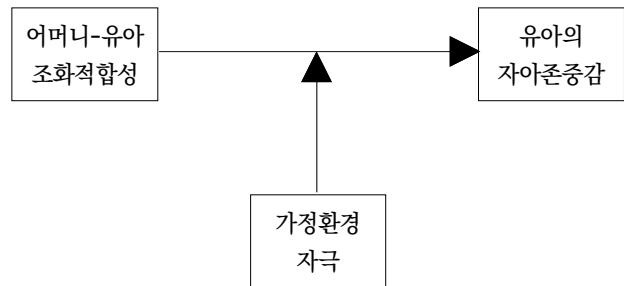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와 사립유치원 4개소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195명과 그 어머니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은 남아 93명(47.7%), 여아 102명(52.3%)이었으며, 형제자매 유무 및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외동 38명(19.5%), 첫째 65명(33.3%), 둘째 81명(41.5%), 셋째 이상 11명(5.6%)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20대 2명(1.0%), 30대 94명(48.2%), 40대 이상 99명(50.8%)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35명(17.9%), 전문대학 졸업 45명(23.1%), 4년제 대학 졸업 102명(52.3%), 대학원 졸업 13명(6.7%)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전일제 취업 93명(47.7%), 시간제 취업 41명(21.0%), 비취업 61명

(31.3%)이었으며,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 미만 19명(9.7%),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1명(36.4%),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74명(37.9%), 800만원 이상 31명(15.9%)이었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자아존중감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Harter와 Pike(1984)의 그림 척도(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를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2003)이 50문항으로 보완하고, 고현경(2010)이 40문항으로 수정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사용한 그림 자료는 박근주(2014)의 유아용 자아존중감 그림카드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일대일 형식으로 자아존중감 측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각 문항의 질문을 할 때마다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그림과 부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그림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택한 그림과 일치하는 정도를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원 중에서 다시 한 번 선택하게 하여 그림과 원의 크기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평정하였다.

본 척도는 인지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존중감,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정서적 자아존중감 5개의 각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Likert식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가 긍정적인 그림을 선택했을 경우 큰 원은 4점, 작은 원은 3점으로 평정하고, 부정의 그림을 선택했을 경우 작은 원은 2점, 큰 원은 1점으로 평정한다. 따라서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지적 자아존중감 .64, 사회적 자아존중감 .76, 신체적 자아존중감 .63,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62, 정서적 자아존중감 .71,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요구수준에 대한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은 Windle 과 Lerner(1986)가 제작하고 Talwar, Nitz 그리고 Lerner(1990)가 타당도를 검증한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DOTS-R)와 ‘개정판 기질차원 검사: 맥락특유이론’ (DOTS-R: Ethnotheory)을 윤진과 김정민(1991)이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검사도구의 구성은 동일하나 ‘DOTS-R’은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고 ‘DOTS-R: Ethnotheory’은 유아의 기질에 대하여 어머니가 지니는 태도, 가치 기대의 형태로 부과되는 요구수준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척도는 Thomas와 Chess(1977)의 뉴욕종단연구(New York Longitudinal Study)에서 제시된 10개의 기질 차원(활동수준-일반, 활동수준-수면, 접근 대 철회, 융통성 대 경직성, 기분, 규칙성-수면, 규칙성-섭생, 규칙성-일상습관, 주의분산성, 주의집중력)을 포함하며, 대상 연령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령 전 아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응답하도록 만든 부모평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는 54개의 문항과 어머니의 요구수준을 측정하는 54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측정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 점수는 10개의 기질차원 각각에서 유아의 기질점수와 어머니 요구수준의 점수를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여 어머니의 요구수준 표준점수(z score)에서 유아의 기질 표준점수(z score)를 감산하여 절대값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이 높고 조화로운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가정환경자극

유아의 가정환경자극을 측정하기 위하여 Caldwell과 Bradley(2003)의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 자극검사’(EC-HOME: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를 김정미와 광금주(2007)가 우리나라에 적합하도록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하여 수정한 한국판

가정환경자극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학습 도구, 학업적 자극, 반응성, 물리적 환경, 언어적 자극, 도구 다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부모의 자기-보고 방법으로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며, '예'에 응답하면 1점, '아니오'에 응답하면 0점으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자극의 신뢰도는(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7년 7월 3주부터 9월 1주까지 진행되었다.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13개 기관의 원장에게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협조에 동의한 기관의 원장과 교사에게 설문지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교사가 어머니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한 경우 어머니용 설문지를 가정으로 배부하도록 하였다. 어머니-유아 간의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가정환경자극 설문지는 어머니가 응답하였으며,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95부가 회수되었다. 이후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거된 설문지를 회수하고, 설문지가 회수된 유아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놀이실과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유아와 일대일로 자아존중감 검사를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주요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고 두 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위와 아래 집단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우선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총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23, p < .01$).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자아존중감($r = -.21, p < .01$), 사회적 자아존중감($r = -.18, p < .01$), 신체적 자아존중감($r = -.19, p < .01$), 정서적 자아존중감($r = -.26, p < .001$)과 유아의 성별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여아에 비해 남아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출생순위와 가족수용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r = -.17, p < .05$), 유아의 출생순위가 외동 또는 첫째일수록 가족수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17, p < .05$),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은 유아 및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정환경자극의 경우 유아의 출생순위($r = -.15, p < .05$), 어머니의 연령($r = -.19, p < .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어머니의 학력($r = .30, p < .001$)과 가정의 월수입($r = .36, p < .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유아의 출생순위가 외동 또는 첫째일수록,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월수입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27, p < .001$).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

로 살펴보면, 인지적 자아존중감($r = -.32, p < .001$), 사회적 자아존중감($r = -.18, p < .05$), 신체적 자아존중감($r = -.23, p < .01$), 정서적 자아존중감($r = -.26, p < .001$)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 유아의 기질의 조화적합성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아존중감($r = .16, p < .05$) 및 가족수용 자아존중감($r = .15,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환경자극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과 가족수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인인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조절변인인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변인 생성 시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하였으며, 평균중심화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하여 상호작용 변인을 생성하였다. 조절효과 검증 시 유아의 자아존중감 전체 및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였으며, 아래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의 첫 단계에서 각 하위요인별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조절변인인 가정환경자극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단계에서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지수는 인지적 자아존중감

표 1.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195)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유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성별 ¹⁾	-												
	2. 출생순위 ²⁾	-	-											
	3. 연령 ³⁾	-	-	-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4. 취업여부 ⁴⁾	-	-	-	-									
	5. 학력 ⁵⁾	-	-	-	-	-								
	6. 가정의 월수입 ⁶⁾	-	-	-	-	-	-							
7.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06	.00	.13	.00	-.04	-.13	-							
8. 가정환경자극	.03	-.15*	-.19**	-.07	.30***	.36***	-.13	-						
유아의 자아존중감	9. 인지적 자아존중감	-.21**	-.13	-.09	.03	.03	.05	-.32***	.16*	-				
	10. 사회적 자아존중감	-.18**	-.14	-.03	.03	-.06	-.02	-.18*	.09	.60***	-			
	11. 신체적 자아존중감	-.19**	-.09	-.02	-.10	-.10	-.04	-.23**	.05	.60***	.59***	-		
	12. 가족수용자아존중감	-.09	-.17*	-.12	.03	.02	-.01	-.11	.15*	.52***	.53***	.37***	-	
	13. 정서적 자아존중감	-.26***	-.04	-.09	-.03	-.17*	-.02	-.26***	.00	.63***	.62***	.71***	.49***	-
	14. 자아존중감 총점	-.23**	-.14	-.09	-.02	-.07	-.01	-.27***	.11	.83***	.84***	.81***	.70***	.85***

* $p < .05$, ** $p < .01$, *** $p < .001$

1)~6) 더미변인으로 처리함, 1) 남아 = 1, 여아 = 2, 2) 첫째 또는 외동 = 1, 둘째 = 2, 셋째 = 3, 3) 20대 = 1, 30대 = 2, 40대 이상 = 3, 4) 취업 = 1, 비취업 = 2, 5) 고등학교 졸업 = 1, 전문대학 졸업 = 2, 4년제대학 졸업 = 3, 대학원 졸업 = 4, 6) 300만원 미만 = 1,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2,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 3, 800만원 이상 = 4

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에서 2.079, 신체적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에서 2.187, 정서적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형에서 2.090으로 나타나 2에 가까우므로 종속변인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인 간의 VIF 지수는 회귀모형별로 1.006~1.158의 분포로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가 나타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효과 (N = 195)

구분	구분	B	S.E.	β	t	R ²	Δ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6	.05	-.21	-3.00**	.05	.05	9.00**
2단계	유아의 성별	-.15	.05	-.20	-2.94**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38	.09	-.29	-4.35***	.16	.11	11.65***
	가정환경자극	.48	.26	.12	1.84			
3단계	유아의 성별	-.15	.05	-.19	-2.90**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A)	-.35	.09	-.27	-3.97***	.18	.02	10.43***
	가정환경자극(B)	.61	.26	.16	2.33*			
	A×B	2.86	1.18	.17	2.43*			

*p < .05, **p < .01, ***p < .001

통제변인인 유아의 성별을 투입한 첫 번째 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은 인지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16, p < .01), 설명력은 5%로 나타났다(F = 9.00, p < .01).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B = -.15, p < .01)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B = -.38, p < .001)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11% 증가하여 16%였다(F = 11.65, p < .001).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B = -.15, p < .01),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B = -.35, p < .001), 가정환경자극(B = .61, p < .05),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B = 2.86, p < .05)이 인지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모든 변인들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18%였다(F = 10.43, p < .001). 즉 남아인 경우,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가정환경자극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인지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조절변인인 가정환경자극을 평균중심화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1 표준편차 위, 아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산출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07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자극이 낮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66(p < .00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높고 낮음과 상관 없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가정환경자극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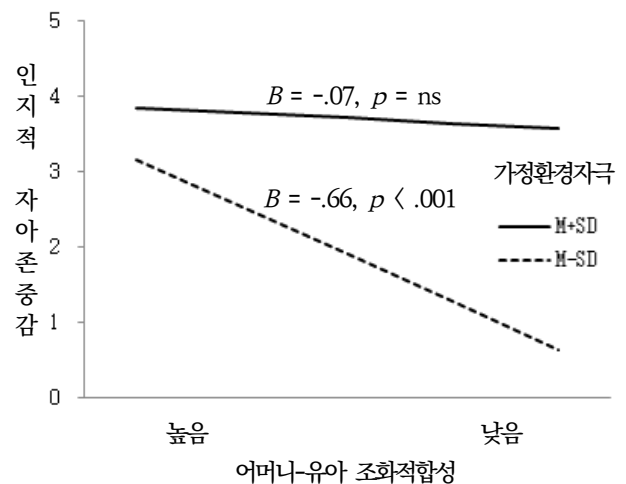


그림 2.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효과

2)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선 통제변인인 유아의 성별을 투입한 첫 번째 단계에서 유아의 성별은 신체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14, p < .01$), 설명력은 4%였다($F = 7.02, p < .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B = -.13, p < .05$)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B = -.28, p < .01$)이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F = 5.86, p < .01$).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B = -.13, p < .05$),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B = -.24, p < .01$), 상호작용 변인($B = 2.63, p < .05$)이 신체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이전 단계에 비해 3% 증가한 11%로 나타났다($F = 5.70, p < .001$). 즉 남아인 경우,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가정환경자극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효과 (N = 195)

구분	구분	B	S.E.	β	t	R ²	Δ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4	.05	-.19	-2.65**	.04	.04	7.02**
2단계	유아의 성별	-.13	.05	-.17	-2.51*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28	.09	-.22	-3.10**	.08	.04	5.86**
	가정환경자극	.10	.26	.03	.39			
3단계	유아의 성별	-.13	.05	-.17	-2.47*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A)	-.24	.09	-.19	-2.75**	.11	.03	5.70***
	가정환경자극(B)	.23	.26	.06	.58			
	A×B	2.63	1.19	.16	2.21*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신체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경우의 회귀선의 기울기는 .01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자

극이 낮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52(p < .001)$ 로 나타났다. 즉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가정환경자극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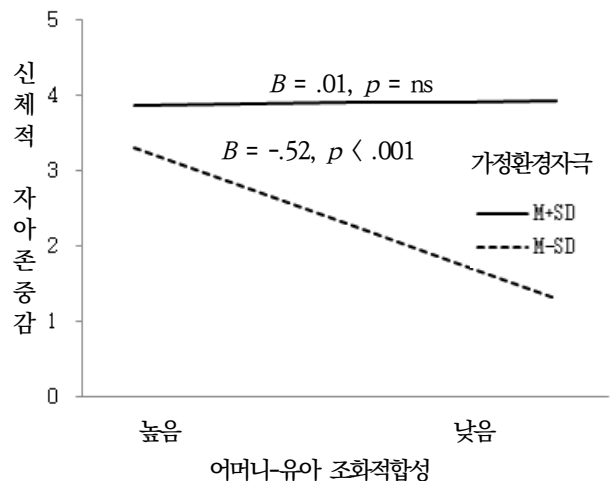


그림 3. 유아의 신체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효과

3)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통제변인인 유아의 성별은 정서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B = -.17, p < .01$), 설명력은 8%였다($F = 8.83, p < .001$).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B = -.15, p < .01$)과 어머니의 학력($B = -.06, p < .05$),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B = -.30, p < .001$)이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F = 8.23, p < .001$). 마지막 단계에서는 유아의 성별($B = -.15, p < .01$), 어머니의 학력($B = -.06, p < .05$),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B = -.27, p < .01$), 상호작용 변인($B = 2.36, p < .05$)이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설명력은 이전 단계에 17%로 나타났

다($F = 7.64, p < .001$). 즉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가정환경자극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효과 ($N = 195$)

구분	구분	B	S.E.	β	t	R^2	ΔR^2	F
1단계	유아의 성별	-.17	.05	-.24	-3.42**	.08	.08	8.83***
	어머니의 학력	-.05	.03	-.13	-1.92			
	가정환경자극	.08	.25	.02	.33			
2단계	유아의 성별	-.15	.05	-.22	-3.25**	.15	.07	8.23***
	어머니의 학력	-.06	.03	-.15	-2.17*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	-.30	.08	-.25	-3.68***			
	가정환경자극	.08	.25	.02	.33			
3단계	유아의 성별	-.15	.05	-.22	-3.22**	.17	.02	7.64***
	어머니의 학력	-.06	.03	-.15	-2.13*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A)	-.27	.08	-.23	-3.33**			
	가정환경자극(B)	.19	.25	.05	.74			
	A×B	2.36	1.09	.15	2.16*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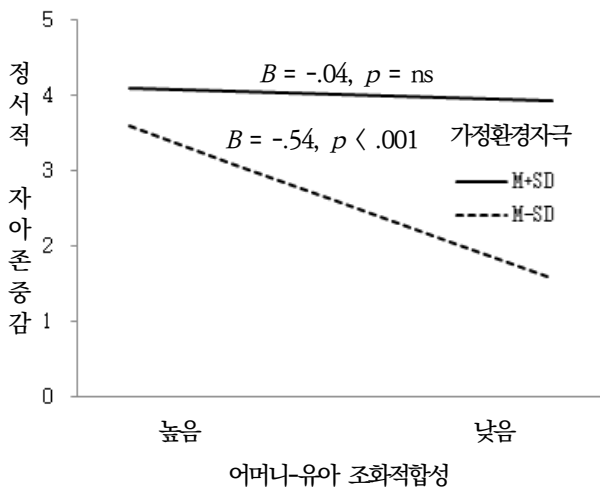


그림 4.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상호작용 효과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가정환경자극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경우의 회귀선의 기울기는 .04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정환경자극이 낮은 경우 회귀선의 기울기는 $-.54(p < .001)$ 였다. 이는 가정환경자극이 높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이 높지만, 가정환경자극이 낮은 집단에서는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유아의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유아의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가정환경자극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정도에 성차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는 남아의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을 하위영역별로 비교했을 때, 남자는 신체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김희정, 임유경, 2014), 여자는 학업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장유진, 이강이, 2011)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대부분 하위영역에서 남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행된 자아존중감의 성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매우 비일관적이다. 이에 대해 Robins와 Trzesniewski(2005)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평생동안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유아기까지는 비교적 변화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유아기는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성차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추후 보다 실증적인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만을 고려하는 것보다 유아의 기질에 대해 양육자가 조

화롭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유아의 정서사회성의 발달에 많은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이 여러 선행연구들(이순복, 김문숙, 2011; 이시자, 2013; 이주연, 이사라, 2018; 허미경, 이소은, 2010)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기질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요구와 기대, 반응을 한다면, 유아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어머니가 유아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유아의 기질에 적합하지 않은 반응을 한다면 유아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쉬울 것이다. 한편, 어머니와 자녀 간의 조화적합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방식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최미경, 2010; 한세영, 박성연, 1996; 허순영, 이경옥, 김영희, 2005)은 어머니와 유아 간의 기질의 부조화가 어머니의 양육을 어렵게 함으로써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가족수용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유아의 조화적합성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기질을 고려한 양육이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영역에 있어서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가정환경자극이 높을수록 유아의 인지적 자아존중감과 가족수용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수준의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김영숙(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환경자극은 학습적, 언어적 자극이나 물리적 환경과 다양한 도구의 제공 등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에서도 인지적 자아존중감과 높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환경자극과 인지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유아의 인지적 발달 또는 학습준비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인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현주, 최항준, 김현정, 2015). 또한 가정에서 다양한 자극을 제공할수록 유아의 학습준비도가 높으며(최지현, 박혜원, 2010), 구체적으로는 유아와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주

는 것과 같이 다양한 언어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연, 200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에게 학습자료와 언어적 자극 등을 제공하는 것은 인지적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므로 유아의 인지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유아 스스로도 인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가족수용 자아존중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자극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유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도 포함된다. 유아가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고현경, 이승연, 2010), 어머니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이인구, 오선진, 2016),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유종남, 오인수, 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정환경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유아는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가족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둘째, 가정환경자극이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유아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이 모두 높을 때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조화적합성이 낮더라도 가정환경자극이 높거나, 가정환경자극이 낮더라도 조화적합성이 높으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수한 가정환경이 다른 불리한 조건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곽금주 외, 2007; Bradley et al., 1994)를 지지한다. 유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자의 반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아에게 풍부한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아와 양육자의 기질이 조화롭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의 다양한 자극과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Bradley & Corwyn, 2002). 또한 잘 정돈된 환경과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유아

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부모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환경의 경험들은 유아가 자신을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작용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유아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유아의 자아개념 발달에 중요하므로 가정환경자극을 높일 수 있도록 부모교육,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방법 개선 등의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Crampton과 Hall(2017)은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풍부한 가정환경을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학업적 자아개념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유아는 가정이 지닌 자원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원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기 쉬우므로 이러한 가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장영은, 2015a; Bradley & Corwyn, 2002). 본 연구에서 가정의 월수입과 가정환경자극 간에 유의한 상관이나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수록 유아에게 적절한 환경적 자극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저소득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가정환경자극의 점수가 낮았으며(김정미, 곽금주, 2007), 특히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 책 읽기 등을 하는 시간이 일반 가정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강한나, 박혜원, 2013).

그러므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유아의 발달을 북돋을 수 있는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정의 소득 수준이 가정의 환경뿐만 아니라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수나 비용(이선애, 2009), 보육서비스에 대한 참여도(문영보, 최복기, 2009)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는 저소득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가정이라도 가정환경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있을 때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영은, 2015b). 예컨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유아의 발달적 자극을 도모하고,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요구도를 조사했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체험실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안영혜, 서현아, 허수윤, 한희정, 2015)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모들이 가정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경험을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황은 지역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설치를 통해 유아 및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최명희, 김희진, 2017).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 유아와 부모를 위한 가정방문 프로그램(김지영, 곽아정, 김유화, 2010)이나 사회복지사를 통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제공(박미정, 손장희, 2007)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실적인 자아존중감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다면적인 자아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 변인들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만 5세 전후의 유아 및 초등학생 초반까지 연구대상으로 포함한다면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가정환경자극을 설문지를 통해 보고하였지만, 가정환경에 대한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가정환경자극에 대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보다 폭넓게 다루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조화적합성이나 가정환경자극 외에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변인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아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 유아의 조화적합성과 가정환경자극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한나, 박혜원(200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6), 613-622.
- 고진영, 이경화(2001). 유아·아동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특성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25, 327-351.
- 고현경(2010). 만 4, 5세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현경, 이승연(2010). 만 4, 5세 유아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분석. **육아지원연구**, 5(1), 27-50.
- 곽금주, 유제민, 김정미(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1-19.
- 김영숙(1999). 유아의 자아 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3(1), 69-98.
- 김은주, 이시자(2015).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5(4), 281-300.
- 김정미, 곽금주(2007).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자극 척도(EC-HOME)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1), 115-128.
- 김지영, 곽아정, 김유화(2010). 저소득 가정 유아의 그림책 읽어주기 가정방문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보육학회지**, 10(2), 113-142.
- 김희정, 임유경(2014). 유아의 다중지능과 자아존중감의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 상호작용 효과 및 상관관계. **한국 영유아보육학**, 87, 233-261.
- 문영보, 최복기(2009). 가족-보육시설 연계활동에 대한 부모 참여 실태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9(2), 35-52.
- 민미희(2017).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및 통제적 양육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97-117.
- 박근주(2014).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놀이성, 어머니 - 유아 간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근주, 서소정(2014). 유아의 자기결정력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유아의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0(6), 25-42.
- 박미정, 손장희(2007).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따른 저소득 부모의 포괄적 보육서비스 만족도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7(3), 17-34.
- 박민지, 김민진(2016). 또래 유능성, 자아존중감, 교사-유아관계와 유아 행복간의 구조 관계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0(1), 217-240.
- 박윤조, 김성현(2016). 유아의 자아존중감, 탄력성 및 문제행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227-244.
- 박희숙, 이승은(200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유치원 적응력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337-356.
- 배경숙, 조희숙(2004).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요구도 및 유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논총**, 13(2), 137-152.
- 안영혜, 서현아, 허수운, 한희정(2015). 영유아 부모의 육아종합 지원센터 참여 실태 및 요구조사. **아동교육**, 24(1), 229-246.
- 유경훈, 강순미(2013). 창의적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간의 구조모형 관계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1), 419-436.
- 유구종, 김현주(2017).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변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2(5), 401-423.
- 유종남, 오인수(201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6(2), 79-103.
- 윤진, 김정민(1991). 인간 발달과 기질과의 관계 - "조화의 적합성" 모델의 이론적 기초와 그 유용성 -.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43-60.
- 이선애(2009). 영유아보육·교육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보육학회지**, 9(3), 69-86.
- 이순복, 김문숙(2011). 어머니의 부모역할기능 및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0(2), 171-186.
- 이시자(2013). 유아의 성별, 기질, 유아-어머니 간 기질 조화적합성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257-278.
- 이인구, 오선진(2016).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과 유아가 지각한 유아-교사관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1(4), 97-120.
- 이주연, 이사라(2018).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기질, 어머니 요구도 및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의 영향. **생애학회지**, 8(1), 37-56.
- 임현주(2017).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9-56.
- 임현주, 최향준, 김현정(2015). 유아의 성별과 출생순위, 어머니 변인 및 가정환경,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인지·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0(6), 247-264.
- 장영은(2015a).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6), 1-21.
- 장영은(2015b). 유아기 어휘발달을 예측하는 보육경험 및 가정환경의 영향력: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6(3), 115-139.
- 장유진, 이강이(2011). 유아의 기질, 유아-어머니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자기지각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2(3), 59-76.
- 조성연(2002).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20(4), 103-111.
- 조준오, 김영연, 나정(2016). 학령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가정환경(HOME)과 성격과의 관계. **아동교육**, 25(1), 261-276.
-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2003). 유아의 자아 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7(1), 43-67.
- 최명희, 김희진(2017).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의 시대적 변화 추이. **유아교육연구**, 37(5), 151-175.
- 최미경(2010). 아동과 어머니의 조화적합성 및 어머니의 공감 능력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51-165.
- 최지현, 박혜원(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 최현미(2013). 유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분석: 기질, 어머니와 애착, 유아-교사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5), 67-87.
- 최현미, 신동주(2012). 유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1), 133-158.
- 한세영, 박성연(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조화/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아동학회지**, 17(1), 245-258.
- 허미경, 이소은(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 허순영, 이경옥, 김명희(2005).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방식 및 아동의 문제행동. **놀이치료연구**, 9(2), 1-17.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adley, R. H., & Corwyn, R. F. (2002).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3, 371-399.
- Bradley, R. H., Whiteside, L., Mundfrom, D. J., Casey, P. H., Kelleher, K. J., & Pope, S. K. (1994). Early indications of resilience and their relation to experiences in the home environments of low birthweight, premature children living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65(2), 346-360.
- Brown, G. L., Mangelsdorf, S. C., Neff, C., Schoppe-Sullivan, S. J., & Frosch, C. A. (2009).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ssociations with child temperament,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and triadic family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5(2), 184-216.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Little Rock, AR: University of Arkansas for Medical Science.
- Chess, S., & Thomas, A. (2013). *Goodness of fit: Clinical applications from infancy through adult life*. New York, NY: Routledge.
- Crampton, A., & Hall, J. (2017). Unpacking socio-economic risks for reading and academic self-concept in primary school: Differential effects and the role of the preschool home learning environment.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3), 365-382.
- Harter, S., & Pike, R. (1984). 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6), 1969-1982.
- Howe, M. L., & Courage, M. L. (1997). The emergence and early development of autobiographical memory. *Psychological Review*, 104(3), 499-523.
- Jambunathan, S., & Hurlbut, N. L. (2000). Gender comparisons in the perception of self-competence among four-year-old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1(4), 469-477.
- Jensen, M. A. (1983). Self-concept and its relation to age, family structure, and gender in head start children. *The Journal Of Psychology*, 113(1), 89-94.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2), 77-172.
- Marsh, H. W., Craven, R. G., & Debus, R. L. (1991). Self-concepts of young children aged 5 to 8: Their measurement and multidimensional stru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3), 377-392.

- Marsh, H. W., Craven, R. G., & Debus, R. L. (1998). Structur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self-concepts: A multicohort-multioccasion study. *Child Development, 69*(4), 1030-1053.
- Marsh, H. W., Ellis, L. A., & Craven, R. G. (2002). How do preschool children feel about themselves? Unraveling measurement and multidimensional self-concept structure. *Developmental Psychology, 38*(3), 376-393.
- Robins, R. W., & Trzesniewski, K. H. (2005).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3), 158-162.
- Stipek, D. J., Gralinski, J. H., & Kopp, C. B. (1990). Self-concept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26*(6), 972-977.
- Talwar, R., Nitz, K., & Lerner, R. M. (1990). Relations among early adolescent temperament, parent and peer demands, and adjustment: A test of the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Adolescence, 13*(3), 279-29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Oxford, England: Brunner/Mazel.
- Verschueren, K., Doumen, S., & Buyse, E. (2012). Relationships with mother, teacher, and peers: Unique and joint effects on young children's self-concept.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4*(3), 233-248.
- Windle, M., & Lerner, R. M. (1986). The "goodness of fit" model of temperament-context relations: Interaction of correlation? In J. V. Lerner & R. M. Lerner (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during infancy and child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31, pp. 109-120). San Francisco: Jossey-Bass.

Relationships Between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child and Self-esteem Among Preschoolers: A Moderating Effect of Quality of Home Environment (HOME)

So Jung Seo

Professor,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Yeon Ju Kim

Master,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Ji Young Ha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Woosong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 and child, child's self-esteem and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lso, the moderating effects of quality of home environment among preschoolers were investigated in the relation of interest in this study.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195 children who attended preschools, located in Seoul. The preschoolers' self-esteem was tested by the trained researcher, and both of levels of goodness of fit between the mother-child and quality of home environment were rated by the mothers of this study.

Resul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levels of preschoolers' self-esteem were positively related to goodness of fit between the mother-child, and quality of home environment. Furthermore, the effects of goodness of fit between mother-child on preschoolers' cognitive, physical, and emotional self-esteem were moderated by the quality of home environment.

Conclusion/Implications: Along with those finding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were discussed.

Received October 29, 2018

Revision received November 26, 2018

Accepted December 10, 2018